

연중 제 30 주 일

기도서 P. 464 A해

제1독서 (출애 22, 21-27)

제2독서 (테살전 1, 5-10)

복음 (마태오 22, 34-40)

# 숲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협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목 상 □

## 이웃 사랑이 하느님 사랑 한 상 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마태오 22, 34-40)

오늘 복음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온갖 정열을 쏟는 것 같지만, <이웃과 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옛부터 조성되어 있던 풍토가 아닌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제상에 났느니라」 하는데서 머리가 굳어진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받는데서부터 부모를 배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살아가는데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쓰는 낱말에는 <너와 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 말을 즐겨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너와 나를 포함하는 우리>라는 의식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의식이 더 강한 듯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느님과 이웃은 하나라고 가르칩니다(참조 마태오 25장 최후의 심판). 결국 크리스찬은 이웃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말할 것이 있어도 부당하게 억눌려 맞닥뜨리는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예: 동일방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양심수인(良心囚人)을입니다. 제도적인 구조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의 제 1독서(출애굽기 22, 20-26)가 잘 가르쳐 줍니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구박받고 학대받으며, 괴롭힘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것처럼, 남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충효 사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라 하지만, 강조하기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풍토조성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함과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全州教區 平協 事務局長)



## 공범자(共犯者)

—어느 들맹이의 외침(1)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뿐인 결혼때도 겨우 서너 돈 되는 금반지 하나를 하면서도 허리가 휘어지는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남아도는 돈을 어쩔줄 모르는 듯 사치심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밀수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부유층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빈부의 격차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나는 세공(金銀細工) 일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어 갔다. 몇푼의 돈을 벌기 위해 먼지나는 작업장에서 뼈를 깎는 노동을 하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구나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이 사회에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 그런데 나는 겨우 나의 기술과 노동력을 밀수입해 들어온 보석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치심과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바쳐야 하더니... 과연 이것이 내가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일인가?

어릴때부터 교회에 다닌 나는 무언가 사회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 실제로 학교 교육이라고는 국민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나에게는 20여 년간을 다니며, 받은 기독교 교육이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내 인생관의 사상적인 지척이 되어 있었다. 나의 생각과 몸 뿐만 아니라 나의 기술과 노동력까지도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었는데, 도리어 나의 기술과 노동력을 오히려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저들을 위해 바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그들과 같은 <공범자>가 아닌가요 하는 죄의식을 버릴 수 없었다.

무슨일을 하더라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몇몇한 일을 하자는 결심으로 금은세공일과 시계장사 일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柳東佑 生活體驗 手記集에서)

## 숲정이 산책



삶에 지친 사람은 모두 모이라!



# 크리스찬으로서 사회를 개선할 의무

이 철 순(마리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 바 있다.

“현대의 의무는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데 있다. 현재나 과거에 대해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려 하는 것을 재건하고 사회의 공익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십자군의 열성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정에는 진리, 정의 사랑의 정신으로 성신이 이를 원하신다는 외침에 절절하여 옛날 성지를 되찾던 십자군 용사와 같이 헌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의 오류의 바다를 타넘어 마음속에 굳게 다져진 사회제건의 부동적 법칙의 지주가 되며 토대가 될 영적 성지를 구축하는 말하자면 십자군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신자에게 그대들의 때는 왔다고 의치노라 투쟁하는 날에 그대들은 제일선에 있으며, 비정한 이탈자는 탈주병이요, 변절자가 되는 일보 전에 서있는 것이다”(1947년 성탄 라디오 메시지).

현실에 있어서 변만하는 사회를 살리고 그 상처를 고칠 해결의 원리를 알리는 것은 가톨릭신자 밖에 없다. 특히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그리스도교적 사회를 세우고, 가톨릭적 진리를 몸에 지니고 실천하는 것은 가톨릭 노동자가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의 제일의 직접적인 사도는 노동자가 아니면 안된다. 이 고귀한 사명을 깨우치고 노동자의 사도를 양성하는데, J.O.C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교황 비오 11세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런 사회를 개선할 의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 1. 사랑의 계명에서

사회문제, 노동문제의 사도적인 해결에 헌신하는 것은 실로 사랑의 계명이 가톨릭신자 특히 가톨릭 노동자에게 명하는 것이다. 하루에 12~16시간이나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 먹고살 일을 걱정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대고 믿으라고 한다면 믿겠는가? 사회문제, 노동문제는 인간구원과 깊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서 인간구원이란 전인적인 구원 즉 사람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구제인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위생적, 경제적, 가정적, 도덕적, 오락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면에서의 구제를 이루어야 하겠다. 비오 11세의 사도적은 이런 뜻이다.

## 2. 사회인의 입장에서

사회인으로서의 가톨릭신자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우리는 혼자일 수도 없고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다.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수도 있어야 사회는 성립되며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에 공헌

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나는 사회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다. 사회의 타락은 나의 타락이며 사회의 고쳐는 나의 고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는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과 연대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에 대해 첫째로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정치가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톨릭 신자, 가톨릭 노동자는 자기 형제들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 의무가 있다. 사회가 상호애와 협력에 의해 구성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사회를 만들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의무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성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람은 하느님의 도구이다. 비천한 것이기는 하나 또한 이런 뜻에서는 위대한 도구이다.

가톨릭 신자 특히 신자노동자야말로 진정한 의의를 누리고 있으므로 사회구제의 제일선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성이나 궁핍할 때는 이미 지나고 지금은 행동의 때, 수확의 가을이다.

특히 청년신자들이여,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데 젊은이의 기상을 보이지 않으려는가?

## <3면에서 계속>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급진부는 농산물 가격의 인상 억제가 아니라, 저임금의 해소 및 정당한 노임의 보장인 것입니다.

어쨌든 농민이 노동의 댓가와 영농의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 상공업을 하는 기업인과 자본가들만이 100억불 수출에 국민소득 1,000불이던 경제성장의 혜택을 독차지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바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단정하고 마땅히, 그리고 신속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막중한 사명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최소한의 농민의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1,300만 우리 농민의 증오와 울분은 해소될 길이 없으며 이러한 국민의 양극화 상태는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총화에 역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이 나라 역사의 주체인 농민들의 정당한 주장의 관철을 위해 범 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앞으로 무기한 무제한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78. 10. 20.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 김 기 철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운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때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운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암 (모이세)

□ 제 12 회 □

## (경) 남원 소화 유치원 학습발표회 (축)

경노잔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일 시: 78년 11월 4일 오후 3시

장 소: 남원 정화극장

후 원: 남원 천주교회, 남원군청, 남원읍사무소

# 전 의 문

한국 천주교 평협, 78 추곡수매가 45,000원 이상으로 제조정(80kg)·전량수매·현금수매·잡부금 강제징수 규제·노동피해 실질보상·농민위주의 곡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건의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본회 산하 한국 가톨릭 농민회의 정밀하고도 과학적인 생산비 조사에 근거, 78년도 추곡수매 가격을 80키로드리 쌀 가마당 45,000원 이상으로 인상, 제조정 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회는 또 정부에서 권장, 재배한 통일벼 제종의 수매에 있어 수매량을 제한하거나 시차 수매제를 철폐하고 농민이 원하는대로 전량을 수매할 것과 외상수매를 하지 말고 전량 현금수매 할 것, 수매 당시 농협출자금 등 잡부금의 강제징수를 엄격히 규제할 것, 정부가 강권한 「노풍」피해에 대해 평년작에 상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회는 농민의 참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곡가심의 위원회를 농민위주로 구성,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부의 곡물수매가 결정에 전폭 반영해 줄 것을 아울러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회 산하 한국 가톨릭 농민회는 75년부터 농수산부 조사원칙에 의거, 쌀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쌀 생산비)을 면밀히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확년 이래의 혹심한 가뭄과 농촌 임금의 급상승, 잇따른 장마와 홍수, 극심한 병충해, 농약, 농기구 값의 폭등 등으로 전년에 비해 생산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中略)

가막힌 농민의 회성이 올해에는 시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정부가 올해 추곡 수매가 책정에 있어 지난해 26,000원보다 15.4% 인상 가마당 30,000원으로 책정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을 정부가 전폭 수락해 줄것을 촉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쌀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인심이 나빠진다」든가, 「쌀값 결정은 사먹는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이 물가를 주도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76년도 쌀값 19% 인상때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0.1%정도로 아주 미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물가상승의 구체적 요인은 인플레이입니다. 인플레이의 주 요인은 수출지원 정책과 중동 팔러, 차관도입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화의 급증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급증된 외화가 원화로 교환되는데, 인플레이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 차관과 수출기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결론입니다.

또 「쌀값 결정은 사먹는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할 때 도시의 서민이나 근로자들이 쌀값때문에 못사는가, 아니면 그들이 받는 월급 및 수입이 적어 못사는가, 전체 근로자의 74.9%가 30,000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기업인 때문에 근로자들이 못산다는 <2면에 계속>

## 요심이 (274)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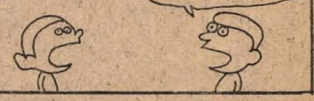
마리아 빨리가 무엇인가요? 성모마리아와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기도하는 모임이지!



아저씨도 마리아 빨리에 가나요? 아니야! 나는 '테레사 빨리'에



테레사 빨리도 있나요? 테레사는 내 애인인데 같이 먹고 노래하고.



데이트하고 즐기기위해... 잔잔해!



### □개업안내

둔율동 천주교 입구에 유미 미용실 설치 교우 여러분의 성원 바람

### 유미미용실

대표: 최완선(울리바) 전화 3693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소아과 전문의 □

### 군산 김정승 소아과

□ 영동파출소에서

개북동교회 중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파티마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결(축)혼

박 순 레 여자 3남 김중범(스떼파노)

이 철 흥 씨 장녀 이영자 양

일시: 78년 11월 5일 오전 11시30분

장소: 정음 천주교회

주례: 박중신 신부님

★양심을 찾자★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제 2차 교리교사 종교 심포지움 - 11월 11일(토) 오후 3시~12일(일) 오후 3시  
장소: 가톨릭센터 강당, 강사: 박도식 신부(대전신학대학 교수), 정달용 신부(대전신학대학 교수), 황춘홍 신부(대구신학원장) ※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도소 영세·견직시에 협조해주신 전주시에 신부님 신자들 감사합니다  
전동·중앙(각 50,000원), 노송동(30,000원), 숲정이·파티마·덕진·서학동(각 15,000원), 중앙 방저거 3회(10,000원) ※ 영세: 20명, 견직: 40명
  -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 - 11월 10일(금) 오후 8시, 장소: 중앙성당, 강사: 박도식 신부
  - 성령 기도.....매주(목) 오후 8시 가톨릭센터 ※ 성령세미나 받으신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들을 도읍시다...성금 접수-숲정이가 편집실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정승영  
사도 회장 범영배

- 미사시간 변경 (11월 1일부터) 아침미사 6시 30분
-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2일(목) 오전 10시
- 성심 부녀회 월례회: 3일(금) 오전 11시
- 교리 교사에 뜻이있으신 분은 범영배 신부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품 주의 하세요(특히 공식미사에)
-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 바랍니다
- 전례담당(공식미사)  
29일: 복사-윤팔만, 함문권, 해설-장남수  
5일: 복사-장남수, 김형택, 해설-함문권

□ 지난주 봉헌금: 159,820원

####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각 분과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11월 3일 어머니미사 후
- 재속 형제회 임회식과 서약식: 11월 1일 오전 11시
- 모든 위령의 날: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미사있음 (11월 2일)
- 유아 영세식: 11월 4일 오후 1시 30분 부모님과 대부모님 같이 나오세요
-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교무금이 떨리지 않도록 합시다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 미사시간 변경  
월-수요일: 오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목: 오전 6시 30분, 금: 오전 6시 30분, 오전 10시, 토: 오후 5시 30분, 7시 30분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 공소 미사안내: 매주(목) 오후 8시 첫째주(목)-내동리 오후 8시, 둘째주(목)-동산촌 8시 셋째주(목)-전당리 8시, 네째주(목)-미산리 8시
- 젊은이들의 모임: 8시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가, 대화, 많은 협조 바람
- 본당의 숙원이던 종이 도착되었음
- 부속건물 신축이 중단되었음 미납금 빨리 납부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00,465원

####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1월은 위령성월: 11월 2일은 위령의 날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 첫철례 7: 11월 4일(토) 저녁미사후 성체강부
- 봉헌금 미수되신분은 안납바람
- 성지순례: 미리미 길대전 신부 묘지 부녀회원 및 단원 77명 무사히 다녀왔음
- 신협의 날 행사: 전주 중앙국민학교 10월 29일 오전 10시, 행사: 기념식 및 체육대회
- 1일교장: 오늘-노한규 형제

□ 지난주 봉헌금: 125,320원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애령주일: 10시 미사후 (특별기도)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 봉헌금(교무금) 완납바람
- 신축헌금 현황  
2반-조태현(5,000원), 8반-(6,000원), 이상근(3,000원), 기타-최귀만(10,000원)
- 사제관 개축을 위해 헌금 조속 완납바람

####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요안나 월례회: 공식 미사후
- 누깁다 부녀회 월례회: 11월 4일(토)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 신협의 날 행사 신협체육대회: 10월 29일 10시 조합원의 빠짐없는 참석바람 장소 전주중앙국민학교
- 청년회 안내: 매주 오전 8시 30분 (유치원 교실)
- 중·고생 성가 연습시간 안내  
매주(토) 미사후, 주일 오후 4시, 평일(월·수)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129,010원

####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2시
- 미사시간: 저녁 7시(주일·평일)
- 예비자 교리: 주일 9시 미사후-학생, 주일 10시 미사후 일반, 수·목 저녁 7시 30분-일반
- 성령 기도회: 금요일 7시~8시
- 교도소 영세 견직: 후원에 감사합니다
- T.V 선포기 기증 (자모회 방)
- 마리아 빨리 참가자수: 137명

□ 지난주 봉헌금: 144,930원 교무: 265,500원

####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 ※ 축! 영세: 8명의 형제 자매 (성당 난로 기증)
- 사도회 및 구역장 정기총회: 11월 5일 저녁 미사후
  - 예비자 교리: 직장인-매주일 저녁 7시 미사후 일반인-매주일 10시 미사후
  - 중·고학생 지도자 교육: 11월 3일 오후 6시
  - 교리교사 교육: 11월 4일 오후 6시
  - 교무금: 겨울살림 준비에 다같이 성의를 모읍시다
  - 수녀원 증축: 신입금 완납해 주시면 도움이 크겠음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325원